

사·부·대·중

우담바라 파문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조경

근래 교계신문에 우담바라꽃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등장하더니 우담바라가 출현했다는 사실들에서는 칼라사진으로 우담바라가 피어난 모양을 담은 커다란 광고를 내어 친견하러 오라고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TV카메라는 불상에 피어난 우담바라와 거의 같은 모양의 꽃(?)을 자동차의 백미러와 찰집의 전등갓에서도 찾아내었는데, 분석결과 그것은 풀잡자리의 알이었다. 취재기자는 풀잡자리의 알과 불상에 피어난 우담바라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종교적 영역의 신성함을 훼손하지도 않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다시 창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생각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잘못된 폐해가 얼마나 크게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였다.

이번 우리 교계의 우담바라 사건은 타종교의 휴거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부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군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도 믿는다.

다만 분명한 근거와 확신도 없이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자칭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한다면, 정경(正經, 바른 견해)의 가르침을 팔짱끼고 허물을 만듦과 두려움 뿐이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는 부처님의 뜻과 같은 법답고 원만한 우담바라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원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세기말의 종말론이 부른 심한 종교적 질병을 겪었다.

후기(후가 와서) 그 신자를 데려 가는 것)라는 열병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파괴하여 광신케 했고, 아직도 그 후기의 열병은 뿌리깊이 잠재하여 다시 창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4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최근 있었던 간화선 논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스님보다는 불자가,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 했다. 또 간화선 수행의 주체자인 남자들의 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왜 간화선인가...문제는 없는가

조계사서 '看話禪 토론회'...수행풍토 찬반논쟁

'오늘의 불교수행은 어떠해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간화선은 과연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핵심적 수행법인가?'

불교신문사가 창간 40주년을 맞아 조계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 개최한 학술세미나 '간화선 대 토론회'.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4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최근 있었던 간화선 논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스님보다는 불자가,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 했다. 또 간화선 수행의 주체자인 남자들의 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제1주제 '왜 간화선인가-수행과 실천'

수행론을 논하고 있어, 왜 간화선인지, 무엇때문에 선이 21세기의 대안인지 등에 대한 선명한 가닥을 잡을 수 없다

중호스님(동국대 교수)도 "무자화두만이 아닌 다른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2주제 '간화선, 문제는 없는가'를 발표한 한영조 교수 또한 "돈오(頓悟)는 없으며, 오직 점수(漸修)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점오(漸悟)만이 있다. 그리고 그 점오에 정직해야 한다.

"화두만 집착 불교의 본질 흐린다"

"현대 맞는 생명력있는 화두필요"

"어록-공안집 공부 등한시 말라"

얻었다는 것은 대해 이외 선사들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고 성본스님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님은 또 "현대 맞는 생명력 있는 화두가 수행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우리 삶의 답답한 길을 풀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화두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덕진씨(고려대 강사) 역시 성본스님의 조주의 무자화두에 대한 이해 부문을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무자화두만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가'라는 쪽으로 토론회의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간화선은 화두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각자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고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본래심의 참가가 될 수 없고, 본래심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오늘의 선종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단순히 간화선

불교가 이웃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해 토론장 분위기를 가열시켰다.

한교수는 "화두를 추구하는 간화선은 최상승의 근기에 맡겨야 할 예외적인 수련법으로, 지금의 불교현실에서는 함난한 암박타기 식의 간화선 수행이 아닌, 잘 닦여진 등산로 같은 대중적 방식의 수행법이 축적되고, 제시돼야 한다"면서 "화두와 돈오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불교의 풍부한 전통들을 불러내 선의 전통과 결합시키는 일부터 방법적으로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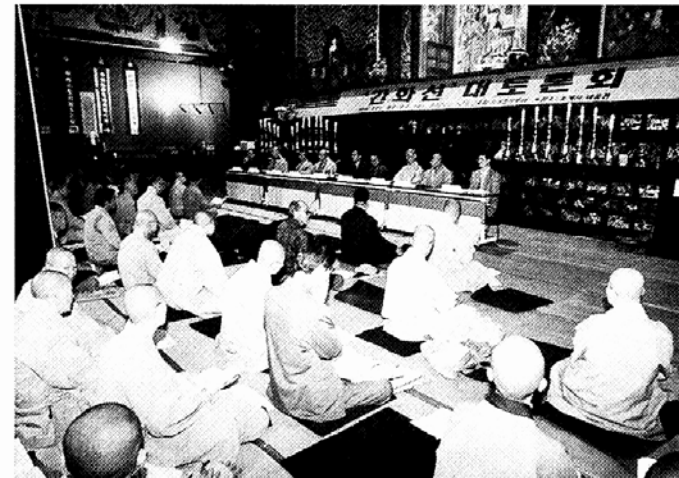
토론자로 나선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돈오적



성본 스님



한형조 교수



10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대 토론회'는 간화선 논쟁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사고를 전제로 간화선이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작용성(作用性)의 본성론적 입장을 간화선의 전제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간화선이 최상이다 아니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여러 수행방법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과 차이점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명진스님(총회부의장)은 "간화선 수행을 최상승의 근기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모든 의문들이, 화두가 되는 것이며, 이를 책과 논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완씨(부산대 강사)는 "돈오선을 폐지하고, 점수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교수의 주장은 돈오선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짓고, "오늘날 한국불교 제반문제의 원인이 돈오선 혹은 간화선에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는 자유토론 시간에는 윤일스님(동국대 강사), 한주영씨(불자), 윤철환씨(무분선진 신학대학원생) 등이 질문을 통해 두 발제자의 주장과 수행의 의문점들을 나누었다.

결론없는 토론회

"한국불교는 진행중"

특히 이날 토론 막바지에 방청석의 성안스님(용주사)은 "왜 '이렇고' 화두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청했다.

조계종 기초선원장 명진스님은 "진정 간화선에 대해 토론하려면 수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유도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지, 왜 애매한 논리로 선방 수행자들을 매도하고, 혼란 시키느냐?"며 주최측에 불만을 토로해 한때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이같은 토론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화선 대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통한 활발한 논의로 전개되기보다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식의 토론장이 되어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간화선 수행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오늘 한국불교의 화두로 남아, 거듭되는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결과 아닌 결과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pia.com)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동국대가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드는 <월간 조선>(11월호)의 기사를 큰 자립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듯이 못할 일이 벌어졌다. <월간 조선>은 연재코너 '성공집단 연구'에서 동국대는 추켜세우고 불교는 벗어날 할 구대쯤으로 여기는 글을 실었고, 동국대는 이를 교계 언론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인사들에게 알렸다.

'동국대학교의 급부상'이라는 제목만 보면,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서의 제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교계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조계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과거의 동국대는 "승복 입은 대학이란 인상이 너무 강해 대학발전엔 장애요인이 될 정도였다",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승복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털어 냈지만...", "승복과 목탁, 사찰, 참배 등 종교적 색채와 근대적인 요소를 불식(不熄)시키고..."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 초고의 일부분을 동국대에서 검토했다는 것

홍보도 좋지만...

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동국대는 <월간 조선>과 접촉하며 동국대를 다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11월호 발간과 동시에 2천여 부를 구매, 3일 동안 각계에 발송했다. 이처럼 동국대가 깊게 관여한 기사에서 어떻게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게재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인생 입학 평균 점수나 우수 대학 순위 등과 같은 계량적인 판단에만 매달리는 유치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보니 첨단 과학과 의학부문의 성과를 강조해야 했고, 당연히 불교와 같은 인문학은 철저히 무시해야만 했을 것이다. 즉, '발전하고 있다'는 현상에만 도취해, 종립대학이라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이다.

요즘 대학 안락에서 동국대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끊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동국대가 정보통신 분야나 일신의 '수도권 불교종합병원'을 세우면서 의학분야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는 조계종립 대학으로서 불교를 중심으로한 인문학의 산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자들 의견 못들어

각자 주장 펴는 자리

구조'의 발표자로 나선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의 유일한 화두(공안)는 조주의 무자(無字)화두 뿐"이며 "무자를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 본래심(本來心)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스님은 "요즘 한국불교에서 추구하는 '이렇고' 화두는 올바른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화두라 할 수 없으며, '이렇고'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화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간화선의 올바른 수행구조와 정신을 잘 모르는 말"이라고 말했다.

간화선은 화두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각자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고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본래심의 참가가 될 수 없고, 본래심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화두를 통해서도 완벽한 깨달음의 실천적 삶을 살 수 없으며, 대소승 경전이나 어록, 공안집의 수확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오늘의 선종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단순히 간화선

행운의 벽조목 안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벽조목은 세상에서 돌도 없는 天下의 행운의 보물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목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베어서 평생동안 가지는 목걸이, 도장, 낙관, 염주, 단주 등을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한편, 「벽조목」은 각종 질병, 사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분, 입시·승진 시험과 성취를 원하시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되는 분에 한해서 공급합니다.



홍련암 02) 909-1360 011-9778-2803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려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제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공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떡배가능)

금용사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7기 佛敎儀式(범음·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과정) and Content (내용). Courses include Basic (3 months), Intermediate (3 months), Practical (6 months), and Advanced (1 year).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11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11월 27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2천만의 깨달음을... 현대 불교... 본사 02) 737-8881, 광릉지사 033) 643-5599,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충청지사 042) 527-0559, 일문지사 031) 713-5111